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과 여성문학사적 가치*

류 준 경**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2.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체재 및
특성 - <춘일소흥>, <영명사득
월루상량문>을 중심으로 |
| II.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 | III.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텍스트의
여성문학사적 의미 |
| 1. 원본의 부재,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의유당관북유람일기』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동명일기>가 실려 있으니,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아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교과서에 실린 대다수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쌓여있지만, 『의유당관북유람일기』경우는 예외적이다. 이는 아마도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서 새롭게 해명되어야 할 사실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또한 기행문이라는 문학의 본령에서 약간 벗어난 장르적 성격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는 가람 이병기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947년 “意幽堂日記”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함으로써 그 존재와 내용이 소개된 것이다. 이때 가람 이병기는 『의유당관북유람일기』는 “연안 김씨(延安金氏)의 의유당이라는 당호(堂號)를 지닌 한 여사(女史)”의 작품으로 “순조二十九年(一八二九年) 가을에 이희찬이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부임하매 의유당도 따라가 있으며 그 부근의 명승 고적을 찾아다니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나는 바를 그 붓으로 적은” 것이라 하였다.¹⁾

그런데 가람 이병기에 의해 비정된 작자와 창작연대는 이후의 연구에서 수정되었다. 의유당의 또 다른 작품을 모아 놓은 『의유당유고』가 발굴 되고, 또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내용과 가람의 비정한 창작연대와 일치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의유당은 연안김씨가 아니라 의령 남씨이고, 창작연대 역시 1829년이 아니라 이보다 60년이 앞선 1769년 즈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²⁾

이러한 작자 논란과 관계된 점을 제외한다면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문체적 특성을 밝힌 석사학위 논문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특히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 <동명일기>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춘일소흥>,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의 경우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1) 延安金氏著·李秉岐校註, 『意幽堂日記』, 白楊堂, 1947, 1쪽.

2) 류탁일, 「의유당유고와 그 작자」, 『국어국문학』 76, 국어국문학회, 1977, 154~162쪽 ; 「의유당일기의 작자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1, 한국문학회, 1978, 75~94쪽.

3) 이연성, 「의유당 관북유람일기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

4) 다만 <춘일소흥>에 대해서는 소논문 1편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연성, 「춘일소흥 연구」, 『이화어문논집』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78, 90~125쪽)하지만

이처럼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이유는 逸話를 모아 놓은 <춘일소흥>과 평양 영명사 득월루의 상량문을 한글로 번역한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이 “관북유람일기”라는 제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한 <동명일기>에 비해 문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의 존재는 그 문학과 무관하게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텍스트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유당 주변의 문학적 상황, 나아가 당시 여성문학의 향유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문학성 탐색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을 중심으로,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체재 등을 검토함으로써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존재가, 특히 여성문학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띄는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II.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

1. 원본의 부재,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을 살피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인본은 물론이거니와, 텍스트의 물질적 특성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서지사항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현대활자화한 『의유당관북유람일기』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이 연구는 국문학 관련 자료를 널리 접할 수 없었던 초기 연구의 한계로 텍스트의 기본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춘일소흥>을 살피는 자리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가람 이병기가 1947년에 『의유당관복유람일기』를 현대활자화하여 간행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때 책의 제목은 『의유당관복유람일기』가 아니라 “意幽堂日記”였다.⁵⁾ 그런데 이 책은 『의유당관복유람일기』 원문의 특성을 그대로 알려 주지 못한다. 이병기는 이 책의 범례에서 “原本은 寫本이고 脫落 또는 誤寫된 데가 많다. 『영명사 득월루 상냥문』 本文에는 뒤바뀌어 적힌 句句字字가 꽤 많은데, 그것은 翻譯文과 對照하여 고쳤다.” 고 하였으며, 또 “俗稱 『아래아』字(·)는 말을 따라서 卜 一 丄 丁들로 고쳤다.” 고 하였다.⁶⁾ 곧 이병기가 본 필사본도 여러 차례 필사되는 과정에서 탈락이나 오사가 많이 발생한 텍스트이며, 나아가 이병기가 현대활자화하는 과정에서 탈락, 오자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 등과 같은 고어표기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그런데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삼년 뒤인 1950년에 다시 현대활자로 간행된다. 민병도에 의해 『조선역대여류문집』이 발간되는데, 여기에 『의유당관복유람일기』가 실린 것이다. 여기서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이전과 달리 제목을 “意幽堂集”이라 하였으며, 비록 현대활자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전과 달리 고어표기를 그대로 살려 원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이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수록된 『의유당관복유람일기』 역시 백양당에서 간행한 책과 동일한 서적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역대여류문집』 서문에서 민병도는 “자료의 수집과 해설은 전혀 이병기 선생과 이병도 선생의 지도로 된 것”⁷⁾이라 밝히고 있으며, “意幽堂集”의 해설 작성자 역시 이병기인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⁸⁾ 다만 이 『조선역대여류문집』에서는 고어 표기를 살려서 기록하고 있기에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현재, 이것이 그나마 가장 원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5) 제목과 관련된 문제는 원문의 행방을 살피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토록 할 것이다.

6) 延安金氏著·李秉岐校註, 『意幽堂日記』, 白楊堂, 1947, 3쪽.

7) 閔丙燾 編, 『朝鮮歷代女流文集』, 乙酉文化社, 1950, 3쪽.

8) 같은 책, 574~575쪽.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원본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병기는 백양당 간행본의 범례에서 “脫落 또는 誤寫된 데가 많”다고 하였으며, 특히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은 “뒤바뀌어 적힌 句字字字가 꽤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실린 『의유당관복유람일기』에는 誤字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영명사득월루상량문>에서도 뒤바뀌어 적힌 글자나 구절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역대여류문집』 소재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원본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아니다. 이병기에 의해 부분적으로 교정된 후 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병기가 보았던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어디에 있을까. 그 서적은 아마도 가람 이병기가 소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백양당 간행 『意幽堂日記』 서문에서 이병기는 “이는 (…) 찍은 고서(古書) 속에서 튀기쳐 나온 진본(珍本)으로 (…) 八·一五해방후 우리 어문학(語文學) 연구열(研究熱)이 점점 높아지는 이때, 이런 책을 감추어 두기는 너무 애석한 일”⁹⁾이라 하였다. 비록 직접적으로 자신 소장본이라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찍은 고서 속”에 있던 것을 찾아서 “감추어” 두었다고 언급한 점에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된 가람 이병기 소장본 중에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없었다.

그런데 『의유당관복유람일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1920년에 李王職에서 작성한 창덕궁 演慶堂 소장 도서 목록에 바로 “意幽堂關北遊覽日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演慶堂은 純祖 28년(1828)에 民家를 본 떠 지은 건물인데, 그 동쪽 善香齋에 많은 왕실의 서적이 비장되어 있었다. 이곳에 비장된 서적을 이왕직에서 1920년에 그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이다.¹⁰⁾

9) 『意幽堂日記』, 1쪽.

10) 연경당에 소장되어 있던 책 중 한문책은 대부분 1929년에 이왕직에서 인수해 갔고, 한글책은 순종 승하 후 계비 윤씨가 1928년 낙선재로 이사하면서 낙선재

이 목록에 의하면 제목은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이고, 부수는 1部이며, 책수는 1冊, 그리고 粧縑은 白紙이다.¹¹⁾ 그리고 이 연경당 소장 한글[언문] 서적들이 바로 낙선재문고의 전신이 된다. 순종의 繼妃 윤씨가 순종 승하 후 낙선재로 이사하면서, 연경당 소장 한글본들을 수습하여 낙선재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낙선재문고에 『의유당관북유람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¹²⁾ 아마도 이병기가 소개한 『의유당관북유람일기』가 바로 당시 낙선재에 소장되어 있던 책이 아닌가 한다.¹³⁾

그런데 이와 함께 의유당 남씨의 또 다른 저작인 『의유당유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유당유고』의 특징, 체제, 내용 등은 이미 논의된 바 있으므로¹⁴⁾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의유당유고』의 필체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유당유고』의 필체가 바로 낙선재본 『壺範』의 필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¹⁵⁾

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낙선재본 소설의 대부분은 바로 연경당에 있던 것들이다. (천혜봉, 「장서각의 역사」,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77~80쪽.)

- 11) 李王職 編,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 1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12) 1920년에 작성된 연경당 소장 언문책 목록에는 총 225부 3,094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거의 100부 550여 책이 현재 전해지지 않는데, 『의유당관북유람일기』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6·25 때 북한에서 낙선재본 문고를 반출하려고 큰 짐짝으로 꾸려두었으나 9·28 서울 수복으로 인해 그냥 후퇴하고 말았다고 한다. (김전배, 「장서각」, 『월간문화재』, 9호, 월간문화재단, 1972, 15~20쪽 ;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4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20쪽.) 이 과정에서 유출된 것인지, 혹은 북한으로 반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 13)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제목이 백양당본에서는 “의유당일기”, 『조선역대여류문집』에서는 “의유당집”으로 되어 있지만 「연경당한문목록 부인문목록」을 참고하건대, 『의유당관북유람일기』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이병기도 인정하여 백양당본의 서문과 『조선역대여류문집』의 해설에서 “이 책은 (….) 『의유당관북유람일기』라기도 하나”, “이 日記는 『意幽堂關北遊覽日記』라 하여” 라고 각각 언급하고 있다.
- 14) 류탁일, 「의유당유고와 그 작가」, 『국어국문학』 76, 154~162쪽.
- 15) 『의유당유고』의 필체와 『곤범』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선친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곤범』은 經書와 송나라 때의 성리학 관련 저술 그리고 부인들의 傳, 碑誌, 行狀 등을 뽑아서 한글로 음을 쓰고, 번역문을 붙여 놓은 것으로 모두 3권 3책이다. 아마도 왕실 여성의 교훈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책의 저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8세기의 인물인 申暲(1696~?)의 글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중후반에 즈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의유당유고』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의유당유고』의 필사자는 ‘石臺’이다.¹⁷⁾ 따라서 석대가 『의유당유고』와 함께 『곤범』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석대는 낙선재본 『곤범』의 필사자라는 점에서 寫字官인 듯하며, 『의유당유고』 역시 사자관에 의해 필사된 점에서 왕실 소장 자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의유당유고』에는 몇 군데 붉은 색으로 교정한 곳이 있는데, 이는 여타의 한글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낙선재본 한글자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유당유고』가 왕실 소장 자료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¹⁸⁾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아마도 연경당 소재 『의유당관복유람일기』가 만들어질 무렵에 『의유당유고』도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¹⁹⁾

16) 허원기, 『곤범의 자료적 성격과 의미』, 『장서각』 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95~111쪽.

17) 류탁일, 앞의 논문.

18) 그런데 『의유당유고』는 연경당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연경당목록이 작성된 1920년 이전에 책이 흘러나왔거나, 처음부터 2부를 만들어 왕실소장본은 사라지고, 집안 소장본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연경당목록과 낙선재본 사이의 비교와 낙선재본의 이본 상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9) 물론 한 帙로 묶여 있다가 나누어진 것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따로 만들어 졌을 수도 있다. 특히 『의유당관복유람일기』와 『의유당유고』의 글들은 서로 다른 시기(『관복유람일기』의 경우 50세 이전, 『의유당유고』의 경우는 50세 이후에 쓴 글을 묶은 것으로 보인다)에 창작된 것임으로 처음에 成冊될 때는 분명 따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왕실에 흘러 들어와 다시금 淨寫된 시기는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가람 이병기가 『의유당관복유람일기』에 탈락과 오사가 많다고 한 점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곤범』이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할 것이다.

2.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체재 및 특성 - <춘일소흥>,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을 중심으로

『의유당관북유람일기』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유당 남씨가 함흥관관으로 부임한 남편 申大孫을 따라 함흥 근처를 유람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咸興府 안에 있는 명승인 樂民樓, 北山樓, 撫劍樓 등을 유람한 <낙민루>, <북산루>와 龜景臺에서 월출과 일출을 구경한 <동명일기> 등이 그것이다. 이 <낙민루>, <북산루>, <동명일기>는 널리 알려진 부분으로, 의유당 남씨의 뛰어난 우리말 솜씨가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동명일기>에서 해돋이 구경 부분의 서술과 묘사는 우리 한글 기행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는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의 일화를 번역한 <춘일소흥>, 역시 번역문인 <영명사득월루상량문> 등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중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은 관북을 유람한 기록이 아니며, 또한 의유당이 직접 창작한 것도 아니지만 “의유당관북유람일기”라는 표제의 책에 함께 실린 것은 특이한 면모이다. 이는 아마도 의유당이 관북을 유람한 비슷한 시기에 직접 번역하였기에 함께 실린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춘일소흥

<춘일소흥>은 金得臣, 南龍翼, 鄭維岳, 鄭琢, 鄭仁弘, 金瑩, 趙狷, 柳夫人, 李璠, 李籟 등 모두 10명의 逸話を 기록한 것이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를 처음 소개한 이병기 선생은 <춘일소흥>의 장르를 ‘전기(傳記)’라 하였지만, 이는 逸話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生平을 소개한 전기라기 보다는 위의 인물과 관련된 몇몇 이야기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춘일소흥>은 의유당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춘일소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수록 인물에 대한 여타의 野史나 逸話 등을 비교하여 의유당의 작가의식을 추출하기도 하였다.²⁰⁾ 하지만 <춘일소흥>의 수록된 각 인물의 일화는 의유당 남씨의 창작이 아니라 번역일뿐이다. 이미 존재한 한문 작품을 抄錄하여 의유당 남씨가 번역한 것이다.

이 <춘일소흥>에 실린 일화 번역의 대본은 모두 두 가지인데, 하나는 陶谷 李宜顯(1669~1745)의 <雲陽漫錄>이고, 다른 하나는 朴亮漢(1677~?)의 『梅翁閑錄』이다. <춘일소흥>에 수록된 10명의 일화 중 처음 다섯, 곧 김득신, 남용익, 정유악, 정탁, 정인홍 등의 일화는 모두 <운양만록>에 수록된 일화를 번역한 것이고, 나머지 다섯인 김류, 조견, 유부인, 이변, 이탁의 일화는 『매옹한록』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이의현의 <운양만록>에 대해 살펴보자.

이의현은 영조 때 文衡을 지낸 대표적인 관료문인이다. 그는 金昌協의 문하로, 일찍이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영조 시기에는 노론의 領袖로서 활동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그는 辛壬土禍로 1722년(경종 2)에 평안도 雲山으로 유배 갔다가, 영조가 등극한 1725년에 解配되는데, <운양만록>은 바로 운산 유배 시에 적어두었던 단편들을 解配된 후인 1728년에 刪定한 것이다.

이 <운양만록>은 이의현의 문집인 『陶谷集』에 실려있는데, 『도곡집』은 이의현 사후 약 20년 뒤인 1766년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춘일소흥> 역시 1766년 이후에 번역되었을 것이고, 특히 <동명일기>가 1772년에 지어졌기에, <춘일소흥> 역시 대략 1772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운양만록>은 모두 58개의 단편들을 실고 있는데, 자신의 집안과 자

20) 이연성, 『춘일소흥 연구』, 『이화어문논집』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78

기의 일로 시작해서, 역사인물의 일화, 문학론, 서적, 역사인물에 대한 평, 思想書에 관한 언급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중 역사인물의 일화는 제 13번째 단편부터 제 30번째 단편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춘일소흥>에서 번역한 것은 제 17, 19, 20, 23, 26번째 단편이다.

<춘일소흥>에서 집중적으로 번역한 17번째부터 26번째까지 내용을 보면, 17번째는 정유악의 일화이고, 18번째는 白沙 李恒福, 淸陰 金尙憲, 玄翁 申欽 관련 일화이며, 19번째는 정탁의 일화, 20번째는 정인홍의 일화, 21번째는 朴燁과 자신의 從祖의 일화, 22번째는 尹斗壽, 尹根壽 형제의 일화, 23번째는 김득신의 일화, 24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않는 당시 관리들의 문제를 비판한 것, 25번째는 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학론인 ‘詩能窮人說’에 대한 평이며, 26번째는 壺谷 남용익의 일화[詩話]이다.

그런데 이들 17~26번째 자료에서 23번째 자료부터는 좀 더 다른 성격을 띤다. 17~23번째까지의 자료는 일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23번째 자료부터는 보다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된다. 23번째 김득신의 일화는 김득신의 독서와 관련된 것이고, 26번째 남용익의 일화는 시화이다. 이는 이후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8번째 자료는 文谷 金壽恒의 시화이고, 29번째 자료는 白湖 林悌의 시화이며, 30번째 자료는 東岳 李安訥과 東溟 鄭斗卿의 시화인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춘일소흥>은 역사인물 10명의 일화를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운양만록>에는 17~22까지 일화적 성격이 강한 자료가 몰려 있기에 이들을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춘일소흥>은 17, 19, 20번째 자료만을 번역하고, 굳이 18, 21, 22번째 자료를 뺀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번역된 자료와 번역되지 않은 자료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역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老論[서인] 쪽의 일화는 빼고 남인 쪽의 일화만을 집중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 남인들의 일화는 모두 부정적 성격이 강하다. 노골적인 비판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는 의유당의 당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당히 남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운양만록> 자체가 상당히 당파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의현의 黨色인 노론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남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남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은 주로 남인에 대한 부정적 일화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춘일소흥>에서는 남인에 대한 배타적인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는 자료만을 특별히 선별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는 곧 의유당 남씨의 당파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춘일소흥>과 <운양만록>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춘일소흥>에서 번역된 또 다른 자료인 『매옹한록』과 관련된 점을 살펴보자.

『梅翁閑錄』은 朴亮漢(1677~?)이 지은 필기·야담집이다. 박량한은 朴長遠(1612~1672)의 손자이자, 尹趾完(1635~1718)의 외손이며, 鄭太和(1602~1673)의 외질로 少論 명문가 출신이다. 『매옹한록』은 일화가 주류를 이루는데, 인조에서 숙종 년간의 時事와 사대부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특히 외조부인 윤지완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정태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정태화의 아들인 東平尉 鄭載崙(1648~1723)이 지은 『東平尉公私見聞錄』에 근거한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신의 외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책으로 보인다.²¹⁾ 곧 소론 명문가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매옹한록』은 간행된 적이 없는 책으로, 필사본만이 전하는데, 이본에 따라 제목이 조금씩 다르며, 수록된 各篇의 수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이본으로 天理大 소장본(2책), 장서각 소장본(2책), 규장각 소장본(2책),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1책), 『稗林』 수록본(53장) 등이 있다. 이들 이본은 각각 261화(천리대본), 144화(장서각, 규장각본), 50화(고려대본), 99화(패림 수록본)가 실려 있는데, 이중 천리대본이

21)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실화집요』(II), 집문당, 1992, 251쪽.

가장 善本으로 추측된다. 천리대본 『매옹한록』의 이야기 중 <춘일소흥>에 번역된 것은 제 4, 8, 11, 30, 40번째 이야기이다. 그런데 <춘일소흥>에서는 제 30, 4, 40, 8, 11번째 이야기 순으로 번역되어 있다. 장서각본의 경우는 번역 순서가 다를 뿐 아니라, 아예 李璠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稗林』 수록본의 경우는 모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유당 남씨가 번역한 대본은 또 다른 이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옹한록』 소재 이야기의 번역에 있어서 의유당 남씨가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지금 남아있는 이본에서 자료가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도 아니며, 번역된 자료에서 비슷한 주제적인 맥락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²²⁾

다만 번역된 텍스트인 『매옹한록』이 소론가에서 작성된 야담집이라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이는 바로 의유당 남씨의 黨色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유당 남씨는 전통적 소론 가문 출신이다. 그의 남편 申大孫의 조부는 소론의 핵심 인물인 朴世采의 사위이며, 숙부 申暲은 박세채의 외손일 뿐 아니라 제자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옹한록』은 간행되지 않았기에, 필사본으로만 유통되었는데, 아마도 같은 명문 소론가였던 신씨 집안에서 쉽게 얻어 볼 수 있었기에 의유당 남씨가 이를 읽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춘일소흥>의 번역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매옹한록』의 경우 이본에 따라 字句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간행본인 <운양만록>을 중심으로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춘일소흥>은 원문을 직역하였는데, 번역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번역의 대본이 야담·일화집으로

22) <6. 김승평>은 기인한 사건과 夢兆를, <7. 조안렴>은 충신의 면모를, <8. 유부인>은 知人之鑑과 괴팍한 성격을, <9. 이번>은 奇人의 면모를, <10. 이탁>은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한문문장이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의유당 남씨의 한문 수준을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몇 구절에 있어서는 오역의 사례가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원문을 다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① 오역의 사례

三. 덩유악

덩유악이란 사람은 서인으로서 갑인 후의 남인의 브터 아침히는 티도를 사람이 참아 바로 보디 못홀러니 그새 남인이 새로 득지햐 허목을 튜즌햐 와주를 삼아 일일은 모든 남인이 유악으로 더부러 꺽등의 모혀 [미수야는 허목의 별호라] 유악이 또한 조츠 미수야를 찬칭하니 청성이 마츄 좌상직으로 참여햐여 겨시더니 희롱햐여 우으며 갈오더 “길보[유악의 자]는 가히 환야를 넘종닌아위라 니로리로다.”[아비 부르기를 임의대로 이웃집 아히다려 혼단 말이라.] 유악이 대참햐야 니출 숙이고 모든 남인이 다 실색대경햐고 듯는 지 다 앙양이 너기더라.

鄭維岳以西人，甲寅後附南人諂佞之態，人不忍正視。時南人新得志，推許穆爲窩主，一日，衆南與維岳會于闕中，衆南齊稱眉叟爺，（眉叟者，穆之號也）維岳亦從而稱眉叟爺不已。清城適在座嘻笑曰：“吉甫可謂喚爺，任從隣兒爲也。”維岳慚沮，衆南失色，聞者快之。（吉甫者 維岳字也）好事者目維岳曰：“回龍顧祖，納馬忘親。”蓋堪輿家有回龍顧祖之格，而維岳以元兇順朋之後，其行事恰相似。且其父死於虜，而不知讐虜，每當勅行時，納馬以圖利故云。（〈운양만록〉）

밑줄친 부분은 “가히 환야를 넘종닌아위라”[可謂喚爺任從隣兒爲]에 대한 설명으로 문맥상 별 문제는 없으나, 이는 “可謂喚爺任從隣兒爲”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이때 ‘爺’는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어른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를 번역하면 “‘爺’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이웃집 아이를 좇아서 한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가 된다. 이는 眉叟를 보고 ‘眉叟爺’라고 높여 부르는 남인들을 좇아서 정유악이 ‘眉叟爺’라고 부르는 것을 희롱한 것으로, 이때 이웃집 아이[隣兒]는 여러 남인들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또한 원문의 뒷부분[好事者 ~ 以圖利故云]은 번역하지 않았다.

② 원문의 중간을 번역하지 않은 사례

四. 덩탁

덩탁은 네천인이니 (...) 크게 놀라 같오대 “그대 명이 지위는 인신의 극진하고 수는 괴이[당수하단 말이라]의 니르리니 우리 모든 벗이 다 쌀오기 어렵다.” 하고 또 같오대 “이 지지라. 녁남 풍속이 향쪽으로 써 데일 낭반을 삼거늘 이제 덩공이 한미흔 사름으로서 귀히 되리리라.” 헛더라. 후의 과연 정공이 상국이 된 후 그 형이 본군 좌수 되엇더니 왜난의 감시 군냥 니우디 못흐므로 좌수를 중형홀시 그 나홀 브르니(...)

鄭琢醴泉人也，家世寒微，遊於曹南冥之門，頗知名於士友間。明廟朝，登第，分隸芸閣。是時用人，只觀才望，不甚拘門閥，故歷踐玉堂銓郎，終至位躋左揆，勳封西原府院君，年享八十，致仕而卒，子姓亦繁，眞稀世之命數也。其在芸閣，適往玉堂，時高霽峰敬命方在直，與諸友論命，蓋霽峰妙於推命故也。鄭公卽取筆書其四柱，使霽峰推之，霽峰怒曰：“君何敢爾。”鄭公遜謝不已。霽峰默觀之，極貴之命也，乃大驚曰：“君之命位極人臣，壽到期頤，吾諸友皆不及也。異哉異哉！”嶺南之俗，以鄉族爲重，必以內外妻家表著之人，入於鄉案，鄭公以寒門之故，官高而猶不得入。爲吏

判時，受暇下鄉，大供具，請鄉老爲三日宴，盖諷使入鄉也。鄉老既受餽，乃議于一鄉曰：“鄭琢秩登正卿，爲國重臣，家世雖微，似不可不入鄉。”鄉人皆許之。一人曰：“是則然矣，但既入之後，如欲與吾輩爲婚姻則奈何？”一時傳笑。鄭公入相後，其兄爲本郡座首，倭寇之亂，監司以軍興不繼刑之，例告年甲，年七十餘。監司責之曰：“年已老而事則疎？”對曰：“鄭琢之兄也，年安得不老。”監司驚而特免之。

위의 <운양만록>에서 정탁 부분을 번역함에, 밑줄 친 부분을 거의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번역하였다.

(2) 영명사득월루상량문

이제 <영명사득월루상량문>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의 작자 및 창작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永明寺는 평양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며, 그곳의 得月樓 역시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요문화재이다.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의 창작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득월루의 창건시기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永明寺 조에 의하면 “1703년(숙종 29)에는 句管이 得月樓를 보수하였”다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참고문헌으로 보건대, 映湖 鼎鎬(朴漢永, 1870~1948)의 <平壤府永明寺重建記>(1922)에 “顯宗四年, 本寺總攝自平禪師, 新修殿寮, 同二十九年三月, 句管大師, 增修得月樓”²³⁾의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1703년 이전에 득월루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득월루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인 耳溪 洪良浩(1724~1802)의 <得月樓重修記>에서는 이와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득월루중수기>의

23)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5,

말미에서 홍양호는 “게다가 이 누각은 집안 형인 판돈령공께서 창건하시고 편액을 다셨는데, 사십 년이 지난 오늘에 나의 손에 의해 중수되었다.(況斯樓，宗兄判敦寧公實勸建而題其扁，今於四十年後，重修於余手.)”²⁴⁾라 하였다. 여기서 집안 형[宗兄]은 홍象漢을 말하는데, 홍양호는 1791년부터 1792년까지 평안감사를 역임하였고, 홍상한은 이보다 약 40년 전인 1752년부터 1754년까지 평안감사를 역임하였다. 따라서 홍양호의 <득월루중수기>에 의하면 1752년에 건립된 것이 된다.

득월루 창건에 관한 기록은 홍상한의 아들인 洪樂命이 쓴 <永明寺重修記>에도 나타난다. 이 <영명사중수기>의 중간에 “강을 조감할 수 있는 동루를 세우고, ‘得月’이라고 편액을 달았다.(建東樓瞰江，扁以得月)”²⁵⁾이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득월루는 1752년에 건립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의 작자는 누구일까. 이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의유당 남씨가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의유당 남씨는 <동명일기>를 그의 나이 46세인 1772년에 지었는데, 이보다 20년 전에 평양에 가서 득월루 상량문을 지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또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평양에서 벼슬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에, 득월루가 지어진 1752년에 의유당 남씨가 평양에 갔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유당 남씨가 <永明寺得月樓上樑文>를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의 번역에서 부분적으로 誤譯의 사례도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추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의유당 남씨는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영명사 득월루의 상량문을 번역하였을까. 이 역시 <춘일소흥>처럼 의유당 집안의 내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명사의 득월루를 건립한 사람은 당

24) 홍양호, <득월루중수기>, 『이계집』 권12(『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2000, 212쪽)

25) 洪樂命, <永明寺重修記>, 『豊山世稿』 권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시 평안감사였던 洪象漢(1701~1769)이다.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의 작자 역시 홍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는 <영명사중건기>를 그의 아들이 썼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홍상한은 의유당 남씨와 인척 관계가 된다. 의유당 남씨의 媿妹夫가 洪麟漢이고, 홍인한과 홍상한은 4촌 사이인 것이다. 곧 의유당 남씨와 영명사 득월루를 창건한 홍상한이 婚班으로 얽힌 사이인 것이다. 따라서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을 의유당 남씨가 쉽게 얻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의유당이 직접 번역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의 작자 및 창작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제 <永明寺得月樓上樑文>의 번역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가람 이병기가 소장하였던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서는 원문의 한자음을 한글로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번역문을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처음 소개한 백양당본에서는 한자음의 한글 기록이 없지만,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이와 같은 체재로 실려 있고, 또 조선시대 한문번역본에서 이러한 체재가 빈번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실린 원문의 한글음은 가람 이병기 선생에 의해서 교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백양당본의 범례에서 “<영명사득월루상량문> 본문에는 뒤바뀌어 적힌 句句字字가 꽤 많은데, 그것은 번역문과 대조하여 고쳤다.”고 언급하였는데,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수록된 것에서 뒤바뀌어 적힌 句句字字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람 이병기의 언급은 가람 이병기 소장본이 의유당 남씨 당대에 만들어진 책은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자의 한글음에서 많은 오류가 보이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필사 과정을 거쳐왔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이본이 여러 개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번역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영명사득월루상량문> 역시 번역에서 큰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보이는 정도뿐이다.

인던구데궁유괴희니 / 옥텡청포지상상이오 (人傳九梯宮遺基 玉廳青蒲之想像)

사람이 구데궁 남은 터홀 던희니 / 옥집과 푸른 개를 싱각고
짜히 동명왕의 괴이흔 스적을 머물우니 / 문무당과 그린굴을 가히 츠
즈리로다.

여기서 밑줄 친 ‘푸른 개’는 푸른 갯벌이다. 그런데 원문의 ‘청포’는 문맥 상 한자로 ‘靑蒲’가 되어야 한다. 앞의 ‘玉廳’을 보건대, 天子의 內庭을 뜻하는 ‘靑蒲’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역에 있어서는 청포의 한자를 ‘靑蒲’가 아닌 ‘靑浦’로 잘못 파악하여, ‘푸른 갯벌’로 誤譯한 것이다.²⁶⁾

Ⅲ.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텍스트의 여성문학사적 의미

『의유당관북유람일기』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한글로 지어진 최고의 기행문학 작품이라는 데 있다. <낙민루>, <북산루>, <동명일기>에서 보이는 뛰어난 묘사와 자유분방한 필치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우리글 솜씨인 것이다. 그런데 『의유당관북유람일기』에

26) 반드시 오역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점도 있다. 의유당이 본 한문원문 자체가 ‘靑浦’로 誤記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誤記임을 파악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는 이들 작품 외에 번역문인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이 함께 실려 있다. 이들에 대해서 번역문학적 맥락에서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뛰어난 우리글 솜씨를 지닌 여성문학가의 문학향유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문문장을 번역하여 향유하는 모습에서 여성의 문학향유의 한 양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뛰어난 한글문학 작가의 작가적 역량이 한문학적 소양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폈듯이 <춘일소흥>에 번역된 자료는 모두 일화이다. 번역의 대본이었던 <운양만록>은 다양한 성격의 단편들이 뒤섞여 있는데, <춘일소흥>에서 번역한 것은 모두 일화이다. 또 다른 번역의 대본이었던 『매옹한록』 역시 사대부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야담집이다. 이처럼 <춘일소흥>이 일화적 성격의 야담을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은 士大夫家 여성의 야담 향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적극적인 야담의 독자로서 직접 번역까지 하고, 그것이 따로 묶여 읽혔다는 사실은, 사대부가 여성의 야담 향유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인 것이다.

특히 야담의 향유와 관련하여 좀 더 고려할 점은 의유당 남씨의 문학적 배경이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²⁷⁾, 의유당 남씨의 시누이인 申氏는 洪麟漢(1722~1776)과 혼인하였으니, 곧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1735~1815)의 숙모가 된다. 그런데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그의 문학적 소양이 바로 숙모[仲母]인 신씨 부인에게 온 것이라 하였다.²⁸⁾ 이는 인척관계로 맺어진 이들 집안에서 여성문학적 역량이 축

27) 류탁일, 『의유당일기의 작자에 대하여』, 『한국문화논총』1집, 한국문화회, 1978, 93쪽.

28) 중모(仲母)계오셔 또 덕행(德行)이 남다르오셔 빅스(百事) 밧드오시미 존고(尊姑) 버금이오시고 기취고결(氣趣高潔)히시며 문식(文識)이 탁월호오셔 진실노 남하풍미(林下風味)오 녀중의 선비라. 날을 심히 스랑호오샤 언문(諺文)을 가라치시고 번백(凡百)을 지도호오셔 즈별(自別)이 구오시미 니 또한 선비(先妣) 궂 좁게 밧드오니 선비 미양 우셔 같오스더 이 아히 그디 쫘오미 심하다 히시더니라 (『한중록』, 보성문화사, 10쪽.)

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야담문학의 향유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의유당의 야담집 번역은 이들과 관련된 집안의 문화적 분위기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洪鳳漢(1713~1778) 집안을 중심으로 엮힌 야담집 편찬의 내력이다.²⁹⁾ 먼저 대표적인 야담집인 『東稗洛誦』의 저자인 盧命欽(1713~1775)은 흥봉한 집안의 藝師였고, 최초의 본격적인 야담집인 『天倪錄』의 저자인 任墜(1640~1723)은 흥봉한의 외조부이며, 3대 야담집의 하나인 『溪西野談』의 작자인 李義平(1772~1839)의 고조부는 흥봉한의 장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흥봉한 집안을 중심으로 한 야담 향유의 문화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흥봉한과 인척관계에 있는 의유당의 야담 향유와 번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춘일소흥>의 존재는 사대부가 여성 특히 인척으로 연결된 몇몇 집안의 야담 향유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와 관련하여 또 한편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왕실과 여성문학 사이의 관련이다. 의유당 남씨의 또 다른 작품집인 『의유당유고』에는 <백련봉서(白蓮峰序)> 등 한문산문 3편의 번역과 <춘경(春景)> 등 한시 17수의 번역 그리고 <기어유손(寄於幼孫)> 등 국문산문 3편이 실려 있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가 의유당이 46세 무렵에 지은 것이라면, 『의유당유고』는 50세 이후에 지은 것을 그녀 사후에 묶은 것이다. 이 『의유당유고』에는 노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나타난다.

『의유당유고』에 의하면, 의유당은 모두 12남매를 출산하였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잃고 만다.³⁰⁾ 젊어서는 자못 변화하여 남편을 따라

29) 이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 양상」,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21~45쪽 참조.

30) 의령 남씨 족보에 의하면, 의유당에게는 3명의 자식만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남북으로 다녔지만, 말년에는 남편과 자식 대부분을 앞세우고 쓸쓸히 보낸 것이다. 이처럼 곤궁한 말년을 보내니, 『의유당유고』는 『의유당관복유람일기』의 글과는 달리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섬세한 관찰은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젊었을 적의 분방한 필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곤궁한 노년의 의유당을 보살펴 준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媵姪女인 孝懿王后였다. 효의왕후는 바로 정조의 妃인데, 의유당 남씨가 서울 삼청동에 기거하는 동안 때마다 음식과 의복을 보내어 이모인 의유당을 보살펴 준 것이다. 그런데 의유당 남씨와 왕실의 관계는 남다르다. 효의왕후의 시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역시 의유당 남씨와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곧 혜경궁 홍씨와 효의왕후, 2대에 걸친 왕실의 안주인이 모두 친인척관계인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의유당관복유람일기』는 왕실에 소장되었던 책이며, 『의유당유고』 역시 왕실에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의유당의 글이 왕실에 소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유당과 왕실의 밀접한 관련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춘일소흥>, <영명사득월루상량문>과 같은 번역 작품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곧 한글번역문학과 궁중과의 관련이다. 현전하는 한글로 번역된 상당수의 문학작품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연경당에 있던 것으로 궁중의 자료이다. 따라서 한글번역문학의 주향유자는 궁중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글번역문학이 궁중이 아닌 사대부 여성문학 향유의 일반적인 양상일 수도 있다. 앞서 살폈듯이, 가람 이병기의 범례에서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의 한글음이 상당히 잘못된 곳이 많다고 하였으니, 이미 향유되던 작품이 궁중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여성문학의 한글 번역 작품인 『호연재유고』도 『의유당유고』와 같이 한문을 죄다 한글로 음만을 적어 놓고 이어 번역을 싣고 있는데, 번역문과 비교해 볼 때 한자음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

있다. 아마도 나머지 9명의 자식은 요절하여 족보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³¹⁾ 그런데 이 『호연재유고』는 왕실과 관련 없이 浩然齋의 가문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의유당과 호연재와 같은 별열사 대부가의 여성문학 작품은 그들 집안을 중심으로 이미 향유되고 있었지만, 그것의 집중과 정리가 왕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실에서 안정적으로 집중·정리될 수 있었기에 현존하는 많은 한글여성문학이 궁중에 집중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중록』을 지은 혜경궁 홍씨의 한글 문학 수업이 왕실이 아닌 의유당의 시누이인 신씨 부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³²⁾

『의유당관복유람일기』의 또 다른 여성문학사적 의미는 여성문학의 폐쇄성과 당파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이 기본적으로 가문·당색의 성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운양만록>에서 선발된 자료에서는 타 당색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같은 당색인 소론가의 서적인 『매옹한록』의 독서 및 번역에서는 당색 중심의 독서 경향을 읽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인척관계인 홍상한에 의해 건립된 영명사득월루의 상량문을 감상하고 번역한 점에서 가문 중심의 독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1) 박무영,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97~125쪽.

32) 하지만 궁중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한글문학 향유의 열성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들어 중국장편소설이 궁중에서 대거 번역되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줄고,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109~133쪽 참조) 다만 왕실 한글문학의 주요한 문화적 원천으로 경화세족[혹은 별열기]의 여성문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촌 사족의 규방 문학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8세기 이래 급속도로 진행된 경향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도 여성의 경우 시집 갈 때 가사를 베껴주는 문화가 있었고, 전라도의 경우 한글소설을 베껴주는 문화가 있었으니, 각 지역별 규방문학의 특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궁중의 여성문학은 경화세족 중심의 여성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사대부가 여성의 문학 향유의 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가문이나 동일 당색의 글만을 주로 향유하는 일천한 독서범위와 초당파적 교류를 맺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폐쇄성과 당파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문학 작품의 연구에서 당파적 접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³³⁾

IV. 나가며

지금까지 『의유당관복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과 여성문학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춘일소흥>과 <영명사득월루상량문>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텍스트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혔다.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의 야담 향유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왕실과 여성문학, 여성문학의 당파성 등과 관련된 문제까지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왕실이나 당파성과 관련된 문제는 경화세족의 규방문화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폭넓은 자료의 검토와 연구의 축적을 통해 여성문학의 계층적·지역적 특성의 해명까지 연구가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의유당, 의유당관복유람일기, 의유당유고, 여성문학

33) 예컨대 『완월회맹연 연구』(정병설, 태학사, 1998)에서와 같이 대하소설에서 적극적으로 당파적 성격을 확인하는 연구 시각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意幽堂集』(閔丙燾 編, 『朝鮮歷代女流文集』, 乙酉文化社, 1950.)
『意幽堂日記』(白楊堂, 1947)
『의유당유고』(류탁일 교수 소장본)
『壺範』(『장서각』 8집 所收 영인본)
『한등록』(『한국고전문학전집』 6, 보성문화사, 1978)
『豊山世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陶谷集』(『한국문집총간』181, 민족문화추진회, 2000.)
『耳溪集』(『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2000.)
-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5.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 양상」,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21~45쪽.
김전배, 「장서각」, 『월간문화재』 9호, 월간문화재사, 1972, 15~20쪽.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4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22쪽.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26, 한국문학회, 2000, 109~133쪽.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류탁일, 「의유당유고와 그 작자」, 『국어국문학』 76, 국어국문학회, 1977, 154~162쪽.
류탁일, 「의유당일기의 작자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1, 한국문학회, 1978, 75~94쪽.
閔丙燾 編, 『朝鮮歷代女流文集』, 乙酉文化社, 1950.
박무영,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97~125쪽.

-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실화집요』(Ⅱ), 집문당, 1992, 251쪽.
- 延安金氏著·李秉岐校註, 『意幽堂日記』, 白楊堂, 1947.
- 이연성, 『의유당 관복유람일기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
- 이연성, 『춘일소흥 연구』, 『이화어문논집』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78, 90~125쪽.
- 李王職 編,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 19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천혜봉, 『장서각의 역사』,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77~80쪽.
- 허원기, 『곤범의 자료적 성격과 의미』, 『장서각』 8집, 2002, 95~111쪽.
- 洪樂命, <永明寺重修記>, 『豊山世稿』 권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홍양호, <득월루중수기>, 『이계집』 권12(『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2000.)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ext and Values in
Women's Literary History of
EuiyudangKwanbukYuramIlgi

Ryu, Jun-Kyung

The aim of this essay is to search characteristics and values in women's literary history in the Text of *EuiyudangKwanbukYuramIlgi* (A diary of Euiyudang's Kwanbuk area trip). Specially by investigating *ChunilSoheung* and *YungmyungsaDeukvolluSangryangmun* which have not yet taken notice we intend to confirm values of *EuiyudangKwanbukYuramIlgi* in women's literary history.

ChunilSoheung is a kind of records that includes some historical person's anecdotes. It was translated the data of Yi UiHyun李宜顯's *Wunyangmanrok* and Bak RyangHan朴亮漢's *Maeonghallok* into Korean. The characteristic of these works is that through all these works we can remark a political coloring. Exactly Yi UiHyun, Bak RyangHan and Madam Euiyudang Nam意幽堂 南氏 belonged to equal political coloring.

The original writer of *YungmyungsaDeukvolluSangryangmun* is not so clear, but because *Deukvollu* of Pyongyang had constructed by Hong SangHang洪象漢 who was the governor of Pyongyang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original writer of this work was related with Hong SangHan. Hong SangHan and Euiyudang were related by marriage.

Reveiwng these facts, we can notice of the feature of literature enjoyment of illustrious officials women. Studying on *ChunilSoheung*, we can notice of the feature that illustrious officials women had been read a historical romance. And with translating *YungmyungsaDeukuollu-Sangryangmun*, we also notice of closed trend and political coloring of women's literature at that time.

Key Words : Madam Euiyudang Nam, *EuiyudangKwanbukYuramIlgi*, *ChunilSoheung*, women's literary